

감각 벗어나 그대로의 실재를 보라

붓다의 눈으로 본 세계

실재와 개념 ①



위요기
공주대 교수

실재는 무엇이며 단지 개념은 무엇인가? 또는 어떤 것이 실제하는가? 이러한 오랫동안 회자되는 질문들을 우리와 상관없는 철학자들의 사색거리들로 치부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들은 우리 삶의 매순간들과 관련 있는 것들이다. 2500여년 전 붓다는 이들 질문들에 대해 명확히 깨달았고 한없는 인내와 정열로 그와 같은 지혜들을 개발하는 방법을 설하였다. 우리는 그의 완벽한 가르침들이 그대로 남아 활용할 수 있는 시대에 사는 아주 특별한 행운을 누리고 있다.

보고는 비구니 수진 보리하와나케(Sujin Boriharnwanaket) 스님이 저술한 빠라마타 담마 연구(A Survey of Paramattha Dhammas)의 일부본으로 니나 반 고로콤(Nina van Gorkom)에 의해 (REALITIES AND CONCEPTS-The Buddha's explanation of the world)란 제목으로 영역된 책의 핵심적 내용만을 추려 요약한 것이다. Sujin Boriharnwanaket는 50년간 아비담마와 위빠사나에 대해 강연해 오고 있다. 그녀의 강연은 태국의 20여개 라디오 방송국에서 방송되어 비구, 비구니와 재가자들에게 길잡이가 되고 있다.

우리는 포도, 망고 같은 과일들의 그림을 볼 수도 있고 실제 포도나 망고를 볼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개념인가? 산이나 바다 또는 나무 등의 그림을 볼 때 그것이 그림이라는 것을 안다. 우리가 실제 산이나 나무를 볼 때 이것들이 개념이 아니고 실제라고 믿을까? 이름은 명백히 개념이다. 왜냐하면 현상의 의미나 특징들을 전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물을 아직 명명하지 않았거나 이름이 없더라도 우리는 이미 전체 또는 덩어리라는 개념을 생각할 수 있다. 비록 그것의 의미를 표현할 어떤 용어들이나 언어들을 모른다해도 그것이 나타날 때 "어떤 것"이라는 생각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을 명명하지 않고도 그것이 나타날 때 무엇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개념으로 아는 것이다. 과일의 그림만 볼 때나 실제 과일을 볼 때 그림과 실제 과일 둘 다 개념이다. 개념(뻬)은 궁극적 실재(빠라마타 담마)가 아니다. 우리가 보아 온 바와 같이 개념에 관해서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 그것은 전체 혹은 덩어리라는 생각일 수 있고 그것이 실제이든 아니든 어떤 것에 대한 용어이거나 이름일 수가 있다. 이 같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두 종류의 개념이 있다.

1. 명칭개념(나마 뻬)은 알게 하는 것 즉, 사물의 의미를 알게 만드는 것이다. 대상에 주어진 이름들.

2. 사물개념(앗타 뻬)은 알게 되어진 것 즉, 명칭 또는 개념으로 알려진 대상들.

실재 과일과 과일의 그림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보는 동안 눈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어떤 존재나 사람 또는 다양한 사물들이 아니다. 포도의 그림을 보든 실제 포도를 보든 간에 눈을 통해서 단지 색깔만 나타난다. 나타나는 그림과 실제 포도 모두 마음의 문의 인식과정의 마음에 의해 경험되는 개념인 대상들일 뿐이다.

“우리가 알아차림을 개발할 때 실재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니 계속해서 지혜를 개발해야 한다”

궁극적 실재는 궁극적으로 올바른 것으로 각각 고유한 성품들이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마음(미), 마음부수(뻬마시까)와 물질(루뻬)이 있다. 그것들은 조건 때문에 생기고 다시 빠르게 사라져 버린다. 미는 대상을 지각하는 찰나의 마음이다. 예를 들면 눈의 의식은 색을 경험한다. 한 번에 하나의 마음이 있으며, 여기에 각각 고유한 기능을 하는 여러 개의 마음의 성질인 정신적 요소들인 마음부수들이 함께 동반된다.

루뻬는 물질적 현상(물성, 물질)으로 인식대상이 될 뿐 인식능력이 없어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 언어에서 재빨리 생멸하는 궁극적 실재인 마음, 마음부수와 물질의 성품들을 모른다면, 단지 관습적 실재인 개념만 알고 있을 뿐이다. 사람들은 언어에서 생기고 멸하는 마음과 물질을 항상 존재하는 것들로 여긴다. 색, 소리, 냄새, 맛은 각각 눈, 귀, 코, 혀의 감성의 대상물질이며 감각대상물질인 추위, 열기, 부드러움, 단단함, 움직임, 지평 등은 몸의 감성에 의존하여 일어나는 마음의 대상이 되는 실재인 물질이다.

감성의 문 과정과 마음의 문 과정 사이에 생명연속성(바왕가) 마음(이것은 오감성의



보리수선원에서 위빠사나 지도를 받는 재가 수행자들. 우리는 수행을 통해 있는 그대로의 실재들을 알아야 한다.

문과 마음의 문에 충돌하는 대상을 경험하지 않고 생의 최초 마음인 제생의식과 같은 동일한 대상을 인식한다)들이 있고 난 후, 감각대상을 경험하는 마음의 문 인식과정의 마음들이 있다. 이렇게 다섯 종류의 감성대상들은 각각 상응하는 감성의 문과 마음의 문을 통해 경험된다. 그들은 육 문인 안문, 이문, 비문, 설문, 신문, 그리고 마음의 문을 통해 경험된다.

또 다른 종류의 대상들, 소위 정신적 대상이라는 것이 있다. 이 종류의 대상들은 마음의 문을 통해 경험될 수 있다. 6가지 종류의 정신적 대상들이 있다. 오감성 물질(감성), 16 미세한 물질(수쿠마 루뻬) 마음, 마음부수, 님바나, 그리고 개념이다. 앞의 다섯 가지 종류의 정신적 대상들, 즉 감성물질들, 미세한 물질들, 마음, 마음부수, 님바나는 궁극적 실재(빠라마타 담마)이다. 마지막 다른 하나는 개념으로 궁극적 실재가 아니다.

감각의 문의 인식과정의 마음들이 사라지고 나면 그 사이에 몇 개의 생명연속성 마음들이 있고 난 후 마음의 문의 인식과정의 마음들이 있게 된다. 감각의 문의 인식과정 후에 일어나는 마음의 문의 첫 번째 일련의 인식과정의 마음들은 막 사라진 대상만을 경험하지 개념을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일련의 마음의 문의 인식과정의 마음

들은 두 가지 또는 세 가지의 인식과정 마음들로 구분된다.

한 찰나의 마음의 문에 충돌하는 마음과 일곱 찰나의 자와나 마음들과 두 찰나의 등 록 마음들이 있다. '자와나'는 문자적으로 '속으로 뛰어든', 충돌을 뜻한다. 자와나 마음들은 감성의 문 인식과정에서 발생하며 그들은 "대상 속으로 뛰어든다. "마음들의 한 과정에서 일곱 개의 자와나 마음들이 보통 발생하며 아라한이 아닌 자들의 경우 선한 마음이거나 불선한 마음이다. 아라한은 선한 마음이나 불선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 그들은 작용만 하는 마음을 가진다.

첫 번째 마음의 문의 인식과정의 일련의 마음들이 사라지고 나면 그 사이에 몇 번의 생명연속성마음이 있고 나서 다른 일련의 마음의 문의 인식과정마음들이 있는데 이들은 감각대상물질 대신에 개념, 예를 들면 모양과 형상 또는 어떤 것의 "전체"로써의 이미지를 대상으로 가질 수 있다.

이 일련의 의문 인식과정의 마음들이 사라지고 나서 그 사이 생명연속성 마음들이 있고 그리고 몇 차례의 마음의 문의 인식과정의 마음들이 뒤따른다. 그들이 사물의 의미를 알고 그들이 용어들과 이름들을 안다. 상이한 일련의 마음들의 사이에 생명연속성 마음들이 있다. 우리가 사람 또는 다른 것들을 볼 때 마음은 물성이라는 궁극적 실

재가 아닌 개념을 경험한다. 눈을 통해 나타나는 궁극적 실재인 대상은 다양한 색깔 뿐이다. 마음의 문의 인식과정의 마음들이 존재, 사람과 그리고 다양한 사물들을 알 때, 마음들은 대상으로서 개념들을 가진 것이다. 그들은 특정 물건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다.

마음이 궁극적 실재를 대상으로 가질 때는 거기에는 존재들도 사람도 사물도 없고 자아도 없다. 이 순간에 실재들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연이어 차례차례로 너무 빨리 이어지므로 마치 우리가 선풍기와 같은 사물을 본다라고 여긴다. 팬이 돌아가고 그것을 우리는 물질의 움직임으로 본다라고 여긴다. 개념을 대상으로 가진 많은 일련의 마음의 문의 인식과정의 마음들이 있어나. 이와 같이 궁극적 실재의 특성들은 숨어 버린다.

무명은 매우 뿌리를 깊게 박고 있어 매우 견고하여 이것이 우리를 관습적 진리에 집착하게 하여 실재들을 사물, 존재 그리고 사람으로 여기게 한다. 제생의식 순간부터 생기고 사라지는 정신적 현상과 물질적 현상이 일생 내내 연이어 계속된다.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떠나서 이 세상에 나오면 육문을 통해 감각대상들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는 보고, 듣고, 냄새를 맡고, 맛보고 그리고 몸의 감각을 통해 차가움과 더움을 경험한다. 실재들은 나타나고 사라지며 내내 연

이어 계속되어지나 그것들은 생기고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져 '어떤 것'으로 오인된다. 우리는 사물들을 덩어리로 모체지거나 전체로 보는 개념에 집착한다. 심지어 사물의 관습적 용어들을 아직 모를 때부터 이렇게 할지도 모른다. 아직 말을 못하고 언어로 표현되는 사물의 의미들을 알지 못하는 작은 아이들과 동물들까지도 '전체'로의 개념들을 안다. 아이가 크게 되면 개념들을 나타내는 언어로 사용되는 단어들의 정확한 의미를 배운다. 이와 같이 아이들은 관습적 진리에 익숙하게 된다.

남성과 여성의 전체적 외관에 집착할 때는 그 대상은 실재가 아니다. 남자 또는 여자를 본다는 것을 안다할 때 눈을 통해 나타나는 실재를 알고 있지 않고 단지 눈을 통해 나타나는 것 때문에 생기는 개념인 상(니미따)을 가지는 것이다. 남자 또는 여자의 전체상은 오묘의 근원이 된다. 우리는 의도(진다 라가)의 힘을 통해 그 이미지를 매력적인 것으로 여긴다. 벨트 같은 개념을 좋아할 때 그 벨트는 매력적인 상으로 나타난다. 그것에 집착하게 되면 욕망에 의해 지배되게 된다. 만약 그 벨트가 아름답지 않다면, 그것이 매력적인 상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눈을 통해 나타나는 색상 때문에 매력적이고 매력적이지 않은 다른 상들이 있게 된다. 세부상도 번뇌가 나타나는 조건이다. 어떤 이가 벨트를 좋아할 때 그는 전체상인 이미지, 그리고 세부상들을 좋아한다. 만약 모든 벨트들이 같고 다양성들이 없다면 세부상들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종류들의 벨트들이 있고 그들은 세부상들에서 다르다. 그 세부적인 것들이 다른 종류의 번뇌를 일으키는 조건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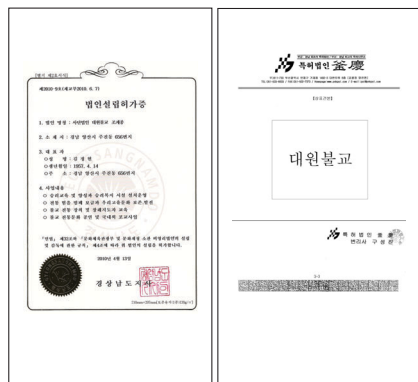
눈을 통해 나타난 것은 사라지고 나서 그 뒤에 일어나는 마음의 인식과정의 마음들이 개념을 안다. 지혜는 있는 그대로의 실재들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눈의 문을 통해 나타나는 안식의 대상물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만 한다. 그것은 대상물질을 경험하는 것은 마음이 개념을 아는 순간과 다른 순간임을 알아야 한다. 이 같이 우리는 나타나는 안식대상이 존재, 사람 또는 사물이라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할 수 있다. 우리는 집착의 근원이 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여기에 남자, 여자, 존재, 또는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 대상은 마음의 문을 통해 알게 된 상 또는 개념이라는 것을 이해해야만 한다. 우리가 바로 알아차림(사빠따나)을 개발할 때 우리는 마음과 물질의 일어나고 사라짐을 깨닫기 위해 실재들의 성질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대로 알아야만 한다. 실재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우리는 눈, 귀, 혀, 몸의 감각과 마음을 통해 실재들이 나타날 때 계속해서 지혜를 개발해야만 한다.

[사단법인 등기번호 234121-0001373]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정법안장 제 77세 정산 석청봉 대종사



입종안내

-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전 안 부 각 1매 (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침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침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총무 원 070-4187-4747 종정예경실 055)364-4747

2) 입종 후 발급증서

-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계적번호 : 농협 351-0227-1551-63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종정 정산당 석청봉 (종정실 예경실장 : 석무량 / 종정실 사서실장 : 석달오)

(사) 아시아 태평양전쟁 희생자 대한추모회, 총재 / (사) 대한불교조계종협의회 前 상임위원장

원로의회

- 최고고문 석홍성
- 원로의장 석무공
- 원로의부장 석보행
- 원로의원 석원정
- 석덕오
- 석수오

총무원

- 총무원장 석해오
- 사무총장 석해주
- 부원장 석용암
- 총무부장 석성산
- 교무부장 석성오
- 사회부장 석현오
- 재무부장 석성현
- 동원부장 석범원
- 정보부장 석범주
- 행사부장 석윤오
- 의전부장 석명오

승정원

- 승정원장 석원정

호계원

- 호계원장 석초오

교구총무원

- 구미총무원장 석해광
- 전남총무원장 석범진

중앙위원회

- 전국비구니원장 석도현
- 전국비구니회장 석능현
- 전국신도회회장 노세주
- 중앙정책위원회 황정재
- 중앙미술위원회 엄태일
- 종단봉사회회장 대지비
- 종단예술위원회 이선혜

중앙총회

- 총회의장 석덕오

문화원

- 문화원장 석실산

포교원

- 포교원장 석해광

부산 제2총무원

- 총무원원장(직) 010-3565-2462
- 해광사(종무소) 051)505-2461
- 해광사(팩 소) 051)516-2461
-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614-6
- 부산시부 제2총무원 해광사

총본산 인터넷 주소 : www.dwbk.net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화하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집합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